

뚜렷한 자기주관 가진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다



경희의 이름의



박영선
(지리학과 78학번)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자기 일에 대한 성취감이 높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무리 지겹고 피로 워도 이런 저런 이유로 참아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자기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으며 최선을 다하는 이가 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뉴스를 제공해 주며, 깔끔한 진행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그녀. 박영선 앵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박영선 앵커를 만나기 위해 여의도에 자리 잡은 MBC로 발걸음을 향했다. MBC본관 앞에는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보려는 많은 여학생들과 파란 제복을 입은 수위자녀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안내원의 안내를 받으며 간 곳은 지하 1층 커피숍. 한 5분정도 기다리고 있으니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TV에서 보던 것 보다는 친근하고 포근한 인상이었다. 그러나 대안배로서의 근엄함도 함께 갖춘 얼굴이었다.

오렌지 주스와 콜라를 사시고, 대화를 시작했다.

지리학과 78학번. 지리학과 방송국이라? 매치가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학교 방송국(VOU)에 들어가면서부터 방송매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자기가 무엇이지 해야겠다는 목적의식만 있다면 굳이 학교나 파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학 졸업 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 대학원에 진학하려 했지만 뜻대로 안되더군요. 그래서 문화방송에 입사시험을 보게 됐죠."

그 후 16년 동안 MBC에서 기자로서 한 길을 걸어 왔다. 경제부 기자생활을 계속 해오다가 올 1월부터는 국제부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지난 95년부터 2년 반 동안은 LA에서 현지 특파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타지생활이

어렵지 않았느냐
물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생활했기에 특별한 걸림돌은 없었다고 아무 지게 대답했다.

이야기는 요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IMF로 이어졌다. 경제부와 국제부 기자로 일한 경력답게 IMF에 대한 해석도 날마다.

"IMF는 모든 면에 있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 필연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너무 남비가 심했지요. 형편은 안되면서 항상 최고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식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다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금의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 잠시 스쳐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남비근성처럼 생활한다면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잘 정리정돈해야 할 때이다'라고 덧붙이며 현장에서 기자로서 느끼는 위기감을 토로했다.

IMF시대 대학생들의 이야기도 나왔다. '실력이 있어도 취직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실컷배 우고 취직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대학생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물었다니 이른 후부터였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너무 태만해요.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처럼 생활한다면 글썽해요. 그들은 우리와는 판판이예요. 그들은 대학에 들어서면서부터 자기의 인생목적과 의식이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을 뿐더러 자기 개발에도 열심이죠. 우리는 '대학생'이다 하면 거의 매일 술먹고, 여행만 다녀라고 하잖아요? 물론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여행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배우는 점이 많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뛰다보면 더 열심히 공부할 결하며 후회될 때가 많거든요. 미국갔을 때도 많이 느꼈고, 정확히 말해 그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녀의 불그레한 얼굴을 보니 시종일관 너무 어두운 질문만 한 것 같아 말머리를 돌렸다. 이렇게 당한 그녀의 대학생생활은 과연 어

떠했을까?
"지리답사를 다니던 기억, 방송국(VOU)에서의 생활, 벚꽃 핀 교장을 거닐었던 기억들이 새롭군요. 아마 얼마후면 벚꽃이 피겠네요. 꼭 한 번 간다면 시간도 좀처럼 나질 않아서..."라며 아쉬워 했다.

낭만적인 대학생생활의 기억을 가진 여대생이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는데, 그녀도 20여년 전에는 생기있고 발랄한 여대생이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요즘 대학생들은 남성은 여성화, 여성은 남성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남성은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대학생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느학교 어느과를 나왔다는 그 중요치 않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 했듯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열심히 생활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렌지 주스와 콜라가 바닥을 보일 즈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정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인터뷰에 응해준 박영선 앵커. 그녀를 보면서 정말 뚜렷한 자기 주관과 있으면 IMF 한과 좁은 문제점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주위에서 인정받으며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것을...

(김동희 기자)

주요 경력

- 1978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입학
- 1982년 경희대학교 졸업
- 1982년 MBC문화방송 입사
- 1995년 L.A 특파원으로 근무
- 1998년 현 국제부기자
- 뉴스데이트, 마감뉴스, 뉴스와이드 앵커

TV에서 보던 정돈된

느낌보다 친근하고

포근한 인상을 엿볼 수 있었다

'98학년도 대학(학과, 학부)별 교내·외 장학학생 선발기준

구분	교내 장학	교외 장학	기타 장학
국문	① 우수: 성적 5위 이내 ② 일반: 학과별 10명, 가정형편 ③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영문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영어학부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철학	① 학년: 성적, 2~4학년: 전공필수/선배(3과목 이상)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지정요건
수학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물리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화학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생물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이학부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미수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법과대학	① 우수: 성적(100%) (단, '98-2학기부터 성적 60%+학과교과(40%) ② 일반: 성적, 가정형편 ③ 교외: 교외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법대동창회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정의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신앙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언론정보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경제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경영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무역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회계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경영학부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정치행정학부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경제통상학부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의료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경향	①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선배 장학금	성적, 가정형편	

의료공제회가 이렇게 바뀔다

의료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일반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경희의료원과 협의하여 회원증을 발급하여 의료원에서 진료후 직접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8년 3월 1일 학교내 보건진료소가 1차진료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학생들이 의료보험 혜택과 학생의료공제회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회원증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회원도 이종회원과 동일하게 의료공제회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진료비를 환불 받도록 회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경희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1차 진료기관(일반병원, 학교내 보건진료소)을 꼭 경유하여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경희의료원을 이용하여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치과, 한방과 제외) 만일, 지역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일 경우는 재학생증명서를 해당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하여 원적지 의료보험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행	1998년 3월 1일 이후 시행
1차진료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유서를 가지고 경희의료원을 이용하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차 진료기관으로 인정되므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경희의료원 이용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증을 발급 받아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받고 의료공제회에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한 후 진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경희의료원에서 회원증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의료공제회에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한 후 진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경희의료원에서 의료보험카드를 진료받고 의료공제회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진료비를 지급 받는다.	중전과 동일

☐ 문의 : 02) 961-0045-8, 962-8211

학 생 의 료 공 제 회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 안내

1. 설립일: 1998년 1월 1일 (정보통신부의 '97년도 대학내 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일환)
2. 설립목적: 가) 정보통신 관련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사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 나) 기술 및 경영지도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3. 대상: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회사 (창업후 2년미만)
4. 특전: 가) 사무실제공 8평규모 (5개 창업실) 나) 정보통신용 텔레마케팅 시스템 활용 다) 전화, PC 등 OA 기기 이용

모 집 안 내

입주처	경희대학교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모집규모	5개 창업실 (8평 내외/실)
신청기간	'98. 3. 17 ~ '98. 4. 10
입주기간	6개월 ~ 2년 이내
제출서류	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1부 (E-mail address 포함)
심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초기창업투자 우선입주
제출처 및 문의처	김영수 조교 ☎ : 0331-201-2592 FAX : 0331-203-7422 조장목 조교 ☎ : 0331-201-2650 FAX : 0331-202-1613

* 지원서류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조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서울캠퍼스 학생처